

2011. 1. 17 제255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1. 17 제255호

산업 · 경제

1. 도심상권에 대한 연간 평가 실시 (영국 리버풀市)
2. IT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중국 상하이市)

건강 · 복지

3.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도 학교’ 확대 설립 (런던)
4.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비디오 서비스 도입 (영국 맨체스터市)

방재 · 안전

5.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도쿄)

도시환경

6. 가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뉴 프로그램’ 실시 (런던)
7. ‘유럽 환경수도의 해’ 기념행사 개최 (독일 함부르크市)

8. 간다강(江) 유역 하천 정비계획 수립 (도쿄)

9. ‘환경 모델도시’로 지정 (일본 교토市)

도시계획 · 주택

10. NGO와 함께 광장 확충·보도 개선사업 전개 (뉴욕)

11. 제철소부지 재개발계획 발표 (미국 시카고市)

12. ‘10년 후 도쿄’ 계획의 2011년 실행프로그램 수립 (도쿄)

13. ‘도시재생 스텝 업(Step Up) 프로젝트’ 시행 (도쿄)

산 업 · 경 제

1. 도심상권에 대한 연간 평가 실시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2010년 12월 도심상권에 대한 연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이 리버풀 중심 상권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됨. 2010년 상반기에 도심 주요 상가지역 유동인구가 2008년보다 약 50만 명 증가함.
- 이번 조사를 위해 도심 주요 상권인 볼드, 매튜, 처치, 라임 거리(총 631개 업체 입지)에 특수 카메라 6대를 설치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지를 파악한 결과 매월 평균 520만 명이 도심지역 상권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유럽의 20대 도매 중심지와 영국의 5대 쇼핑중심지로 뽑힌 리버풀 상권이 부활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지역 상인들은 지난 2년 동안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리버풀을 널리 알려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 점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입을 모음.
-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살펴보면 ① 도심 스케이트장 개장 6주 만에 약 2만 2000명 입장, ② 247개 지구를 대상으로 상권 살리기 활동 전개, ③ 市 도심상권 담당직원이 1주일에 약 241.4km를 발로 뛰며 상권 지원사업 수행, ④ 18개 상점을 임의로 선정한 뒤 손님으로 가장해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등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 ⑤ 주간시간대 도심상권 치안 확보, ⑥ 제품 구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문제 처리, ⑦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⑧ 상가 청결도 향상, ⑨ 상가

축제 참여율 62% 향상, ⑩ 안전하고 즐거운 야간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임.

- 市 도심상권팀은 이와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3년간 상권 활성화 2단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2010년에 처음 시도한 상권 활성화 평가가 2단계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596.asp)

2. IT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의 IT서비스산업이 ‘12.5계획(2011~2015년)’ 기간에 2배 이상 성장해 상하이의 새로운 ‘지주산업’(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10년 12월 발표된 ‘상하이 IT서비스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상하이 IT서비스산업 매출액이 6000억 위안(약 101조 원)에 달해 상하이 GDP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일반적으로 GDP의 5%를 넘는 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칭함. 현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 통신서비스 등 IT산업은 상하이 최대 지주산업임.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0년 1/4~3/4분기 상하이 IT서비스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성장하였고 성장속도도 매우 가파름.

- 市 경제서비스위원회는 12.5계획 기간에 IT서비스산업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20% 수준으로 잡고, 2020년까지 4배 정도 성장해 1조 2000억 위안(약 202조 원)의 산업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함. 이를 위해 市는 R&D를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할 방침임.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산

업 R&D 비용을 해당산업 수입의 10% 이상 규모로 지출할 예정이며, 종사자 수를 향후 5년간 60% 이상 늘려 매년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http://wenhui.news365.com.cn/zhxw/201012/t20101208_2900311.htm)

건 강 · 복 지

3.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도 학교’ 확대 설립 (런던)

○ 런던에서는 영국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은 교육환경 및 학력 성장속도와 비례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높음. 市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민의 관점이 다양함에 따라 특성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요도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학교 설립을 확대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기로 함.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도 학교란 ① 학부모가 적극 참여해 학교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거나 해결하는 참여형 학교, ②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가 설립한, 독립적인 소규모 사립학교를 의미함. 첫 번째 유형은 2007년 잉글랜드에 세워져 ‘최우수 학부모 주도 공립학교’로 선정된 엘름그린 학교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학교 발전을 이끌고 싶은 학부모가 학교 운영조직에 참여해 학교 교육방향을 함께 만들어감. 두 번째 유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부분 종교, 문화, 인종적인 배경을 가짐.

· 런던은 다층적 행정구역, 학교 배정 문제, 사립학교 전통 등이 복

잡하게 얹혀 있어 영국 내에서도 학교 간 협력과 조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임. 市는 일반학교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특수 자율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학부모·지역사회 간 미찰을 조정해야 함. 학부모 주도 자율형 학교는 일반학교보다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市와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함.

- 공립학교는 대부분 학부모에게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만 많은 학교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市는 학교 리더십(정책결정, 거버넌스, 전문 감독, 학교 행정, 내·외부 의사소통 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영역에서 학부모가 리더십을 적절하게 발휘하도록 독려하거나 이를 제도화함. 市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와 조정에 큰 노력을 기울임.
 - 입학 허가: 학부모 주도 자율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배정에 대한 조율기능이 더욱 중요해짐. 市는 특정 학교에 대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학생에게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학교를 배정함. 임시 입학 허가가 최근 빈번해지면서 개별 학교의 입학 허가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짐. 市는 학부모의 불만사항을 수렴해 입학 허가 결정이 공정하게 되도록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춤.
 - 학교부지 계획: 市는 적정한 학교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런던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립학교 부지를 매입하기도 함. 새로운 학교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함. 학부모와 지역사

회가 학교 설립 지원서를 제출하면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함.

- 학교시설 개선 및 발전 도모: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확립함. 일반적인 학교시설 보수와 관리 등 물리적인 학교행정뿐 아니라 학교 운영조직 내의 구성원 간 문제도 해결함.
- 도시계획과 지역사회 발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율학교를 수용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지역사회 발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市는 교육기반시설을 전체 도시 계획 과정에서 검토함. 학부모 주도 자율학교 부지 면적을 규제하고 일반학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함. 자율학교 학생이 광역권에서 통학하기 때문에 교통시스템도 확충함.

(www.londoncouncils.gov.uk/search.htm?cx=012816060298198299354%3Aulbaum7l6aw&cof=FORID%3A11&ie=UTF-8&q=PUTTING+LOCAL+COMMUNITIES+AT+THE+CENTRE&sa,x=25&sa,y=14#1093)

4.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비디오 서비스 도입 (영국 맨체스터市)

- 영국 맨체스터市는 청각장애인이 화상전화나 웹 카메라를 활용해 市 직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첨단기술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함. 화상통화를 하거나 市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이면 즉시 영어 수화를 할 수 있는 市 담당자와 연결되는 시스템임.

- 市는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화 비디오 시스템을 도입함. 청각장애인은 별도의 예약 없이 공무원에게 市 행정에 대해 문의하거나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
- 市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도록 시립도서관에 화상전화를 설치했고 소비자 상담센터에도 설치할 계획임. 웹카메라가 내장된 PC로 市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www.manchester.gov.uk/news/article/5830/manchester_city_council_launches_high-tech_interpreting_services_for_deaf_people)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 평가지표 공개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삶의 질 평가지표를 2010년 11월부터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웹사이트에는 2만여 개 데이터가 있으며 이들 자료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표와 그래프로 구성됨. 검색자가 기간, 지역, 항목, 자료형태 등을 설정하면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음. 시민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투명하게 시행되는지를 평가하고 市는 정확하고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음.

(www.metropulsechicago.org/)

방재 · 안전

5.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도쿄)

- 일본에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년)이 발생한 1월 17일을 ‘방재와 자원봉사의 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방재와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

東京消防庁

必要なんだ
ボランティア!
— 私たちこそ
まちのボランティア —

防災とボランティア週間
1月15日 ~ 1月21日
1月17日は
防災とボランティアの日

東京消防庁
TOKYO
F.D.V.
災害時支援ボランティア募集中

災害時支援ボランティアは、震災等発生時に消防活動の支援を行う専門ボランティアです。
東京消防庁災害時支援ボランティアに興味がある方は、
東京消防庁の消防署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都 東京消防庁 消防総局 広報課
〒100-8555 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 1-1-1
TEL: 03(3212)2323 FAX: 03(3212)2323
E-MAIL: koho@fd.tytl.go.jp

家族の
転倒・落下防止対策を実施しよう。

平成22年度 東京消防庁防災訓練 消防 啓発 啓蒙 (1/15~1/21)

防災は 備えと意識と 助け合い

消防 7119
東京消防庁緊急対応センター
TEL: 03(3212)2323
FAX: 03(3212)2323

- 도쿄소방청은 이 기간에 방재 훈련이나 행사를 소방서별로 실시하는데 이 행사에 ‘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함. 이 자원봉사단은 진도 6 이상의 지진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사고 발생 시 지정된 소방서나 근처 소방서에 집결해 도쿄소방청의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자원봉사단으로 2010년 10월 현재 등록자 수가 1만 7152명에 이름. 또한 도쿄소방청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방재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가정 내 인명사고를 초래하는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관보 등으로 알림.

(www.tfd.metro.tokyo.jp/camp/2011/201101/camp1.html)

업종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 검토 제안 (중국 상하이市)

- 중국 공산당 산하조직인 중국민주동맹 상하이市위원회가 펴낸 ‘소득분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에 있는 기업체 직원의 업종 간 최저 및 최고임금 차이가 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업에서도 경영자와 일반직원의 소득차이가 5배에 달하며 상·하위 10% 직원의 임금 차이는 10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 건축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임대서비스업, 주거 및 기타 서비스업 등 6대 업종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름. 이들 6대 업종 근로자는 상하이 전체 근로자의 68.3%를 차지함. 市위원회는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http://dfdaily.eastday.com/d/20110105/u1a842776.html>)

도 시 환 경

6. 가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뉴 프로그램' 실시 (런던)

- 런던시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뉴(RE:NEW) 프로그램을 실시함. 이 프로그램은 런던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구와 에너지 절약용 스탠바이(Stand-by) 스위치를 무료 제공하고 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조언함. 에너지 손실이 높은 지붕과 벽의 단열재 설치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함.
- 시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 시는 향후 3년간 이 사업에 사용할 약 16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 이 프로그램은 시를 비롯해 런던개발청, 자치구, 에너지절약 트러스트, 런던의 미래(London Futures)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시행함.

(www.lda.gov.uk/projects/renew/index.aspx)

7. ‘유럽 환경수도의 해’ 기념행사 개최 (독일 함부르크市)

- 독일 함부르크市는 2011년 ‘유럽 환경수도의 해’를 맞아 1월 14일 시청 앞 광장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환경 관련 정보도 제공함. ‘지속 가능한 댄스 플로어’(Sustainable Dancefloor)도 주요 행사임.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댄스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이 춤을 추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전력량은 계측기에 표시되어 참가자 모두가 볼 수 있음. 이날 ‘에너지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한 팀에게 상을 수여함.



- 댄스장 주변에서는 독일연방 철도청, 파나소닉 전공(주),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유럽 환경수도와 관련된 단체, 기업, 스폰서가 앞으로 참여할 프로젝트를 시민에게 소개함. 정보전시관에서는 ‘유럽 환경수도’ 관련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http://umwelthauptstadt.hamburg.de/veranstaltungen/2582990/buergerauftra kt.html>)

8. 간다강(江) 유역 하천 정비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사람과 생태계가 한데 어우러져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도쿄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간다강(江) 유역 정비계획’을 2010년 말 수립함. 간다강은 도쿄 중심부를 지나 스미다강(江)으로 합류하는 연장 24.6km, 유역면적 약 105km², 유역인구 약 165만 명의 1급 하천임. 지천으로 젠푸쿠지강(江), 묘쇼지강(江), 에고타강(江)이 있으며 간다강에서 갈라져 나온 하천으로는 니혼바시강(江)과 가메시마강(江)이 있음. 정비계획은 간다강 유역의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함.

- 이 정비계획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都가 수행해야 할 치수 및 수리, 환경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것임. 都는 향후 이 계획에 근거해 안전한 강 만들기를 추진하고 하천환경 보전에 노력할 예정임.



<간다강 취수시설(취수구)>

-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치수(治水) 측면에서는 홍수나 밀물에 의한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50mm 규모의 강우와 1959년 이세만(伊勢灣) 태풍과 같은 위력의 태풍으로 발생하는 밀물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을 정비하고, ② 환경 측면에서는 하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류의 생식과 이동, 수생식물의 생육·번식이 용이한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0/12/70kck100.htm)

획기적인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의 2011년 계획 발표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획기적인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의 성공을 자축하면서 2011년에 더 많은 가정의 안전과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이 프로그램은 市와 리버풀 기초보육 신탁이 협력해 가장 낙후된 지역의 주택과 건강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함.
- 市 건강가정팀 직원이 2011년 1월까지 1만 3000가구 이상을 방문한 결과 약 1만 가구가 주택 및 건강 문제와 관련해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市는 해당 주민과 개별 면담을 한 후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요청하고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함.
- 市는 2011년에도 집주인과 협의해 더 많은 세입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저소득층 주민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637.asp)

9. '환경 모델도시'로 지정 (일본 교토市)

○ 일본 교토市는 2009년 1월 저탄소사회를 위한 '환경 모델도시'로 지정됨.
市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60%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궁극적으로는 온실가
스를 저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탄소 제로 도시를 지향함.

- 市는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①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②
도시경관과 저탄소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만들기, ③ 저탄소형 생
활양식으로의 전환, ④ 저탄소형 경제구조 형성 및 생산활동 전개, ⑤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 활용, ⑥ 시민환경펀드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함.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람 중심의 도로 및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전략: 대중교통과의 연계 확대, 환승 편의성 증진 및 주변
도로에서의 자동차 유입 억제, 에너지 고효율 버스 시범 운행 등
- 저탄소 경관 창조를 목적으로 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을 만들
기' 전략: 저탄소건물 인증제도 도입, 저탄소 하이브리드형 주택
건축,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사용 촉진 등
- 생활양식의 전환과 기술혁신: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에코
포인트와 카본오프셋 시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2R(Reduce,
Reuse)형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 등

(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056642.html)

도시계획·주택

10. NGO와 함께 광장 확충·보도 개선사업 전개 (뉴욕)

- 뉴욕시는 NGO와 함께 커뮤니티 단위로 소규모 광장을 설치하고 보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욕 플라자 프로그램’(NYC Plaza Program)을 발표함. 이 프로그램은 잘 이용되지 않는 거리나 쌈지공원을 대상으로 활기찬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양질의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되 도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적합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공간을 우선 대상지로 함. 특히 녹지나 보행환경이 열악하거나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함.
-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 내 모든 지역이나 NGO에 평등한 기회를 주되 계획을 제안하는 단체는 뉴욕시 5개 區에 위치해야 하고, 뉴욕주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대상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함. 최종 선정된 계획안은 市 교통국의 지원으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며 환경친화적인 근린 오픈스페이스로 만들어질 계획임. 식수대나 공공미술작품도 함께 설치함. 市는 평가를 실시해 계획 제안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운용할 계획임.
- 계획안이 선정되는 단체는 ① 공원 및 광장 유지 관리, 청소, 상수도 관리, 불법 광고물 및 낙서 제거 등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② 시설에 관한 보험 등록비용을 부담하며, ③ 공공에서 시행하는 워크숍, 자원봉사활동, 설문조사, 홍보 등에 협조해야 하고, ④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개최를 돕거나 적극 참여해야 하며,

⑤ 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市는 그동안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따라서 여전히 도심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공원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市는 1000명당 공원면적이 1만㎡, 1250명당 놀이터가 1개임을 고려해 대상지 우선순위를 정함. 이번 프로젝트는 보행환경 개선뿐 아니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지역 NGO의 참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www.nyc.gov/html/dot/html/sidewalks/publicplaza.shtml)

도유지를 활용해 ‘수명이 긴 친환경 주택’ 공급 (도쿄)

- 도쿄都는 도유지(都有地)를 활용해 ‘수명이 긴 친환경 주택’ 공급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 시행지침을 마련함. 수명이 긴 친환경 주택이란 내구성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설비를 갖춘 주택으로, 설비 유지와 갱신이 쉬워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주택임.
- 시범사업은 후추市 소재 약 2150㎡ 규모 도유지를 대상으로 시행함. 사업 기간은 都와 사업자 간 기본협정 체결 후 5년 이내임. 먼저 都가 공모로 선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도유지를 매각하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친환경 주택을 일반 주택과 같은 가격대로 공급함. 이후 민간 사업자는 주민의 협조를 얻어 일정 기간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검증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12/20kcr500.htm)

11. 제철소부지 재개발계획 발표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예전에 제철소부지로 이용되었던 곳을 재개발할 계획임. 40억 달러(약 4조 4500억 원) 규모의 재개발계획이 발표된 South Work 지역은 미시간 호수와 접해 있고 20세기에 U.S Steel 공장이 가동되었던 곳임. 약 190만㎡ 규모로 북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도심을 관망할 수 있는 곳임. 이곳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주택, 상업 시설, 고등학교, 1500대 보트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Marina) 등이 30년간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2011년 9월 조세담보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본격 시행되며 1차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함. 마스터플랜은 New Urbanism과 친환경 도시계획 이론의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가로계획을 확장하고 블록 규모와 거리 폭을 줄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임. 여러 개의 작은 공원과 약 50만㎡ 규모의 호반 공원도 조성함.

- 현재 이곳은 작은 벽돌 건물과 몇 개의 큰 벽돌 벽만 있음. 벽돌 건물은 마케팅센터로 이용하고 1개 벽은 산업지역이었던 이곳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남겨둘 예정임. 市는 3/4 이상이 매립지인 이곳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경기침체로 힘든 소규모 상점과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www.nytimes.com/2010/12/29/realestate/commercial/29chicago.html?_r=4&pagewanted=1)

도시예술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市는 거리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새로운 도시예술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문화요소를 활용한 거리 가꾸기 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거리 가꾸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됨. 市는 커뮤니티 단위로 민간과 협력해 조각품 등 다양한 설치미술품을 전시하도록 공공공간 이용을 허가하고, NGO는 예술가와 함께 교량, 건물, 탑 등 주요 시설에 야간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市 교통국이 작품 선정, 설치, 해체를 주관하고, ② 연 2회 유관 NGO와 공동 작업을 하며, ③ 작가나 설치자가 직접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④ 미술작품을 11개월간 설치하도록 하며, ⑤ 설치비용은 市·해당 지역 커뮤니티·민간단체가 후원하며, ⑥ 미술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할 경우 작가나 설치자가 제안한 장소를 우선순위로 하고, ⑦ 작품 이전과 해체를 위해 약 13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⑧ 행위예술 등 공연을 공공장소에서 펼치도록 함.

(www.nyc.gov/html/dot/html/sidewalks/urbanart_prgm.shtml)

12. '10년 후 도쿄' 계획의 2011년 실행프로그램 수립 (도쿄)

○ 도쿄都是 2006년 12월 '10년 후 도쿄'라는 전략계획을 수립해 2016년 도쿄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이 계획은 미래를 대비한 도시 인프라 정비뿐 아니라 환경, 안전, 문화, 관광,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년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근 2011년 프로그램을 수립함.

- 계획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총 26개 시책, 374개 사업을 담음. 사업비는 3년간 2조 엔(약 26조 8200억 원)이며 이 중 2011년도 예산은 6300억 엔(약 8조 4400억 원) 정도임. 기본방침은 ① 실행프로그램 추진성과를 평가해 효과적인 사업으로 재설계하고, ② 효과가 큰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이 조기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우선 시행하며, ③ 주변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복합적인 정책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것임.

· 都是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중점사업으로 ①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② 보육 인재를 확보해 보육서비스 확충, ③ 국지성 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최소화, ④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책을 실시해 건물의 내진(耐震)화 제고 등의 사업을 제시함. 그밖에 민간의 활동의 장을 넓히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도쿄의 우수한 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규제를 완화해 스미다강(江) 유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내용도 담음.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0/12/DATA/70kch100.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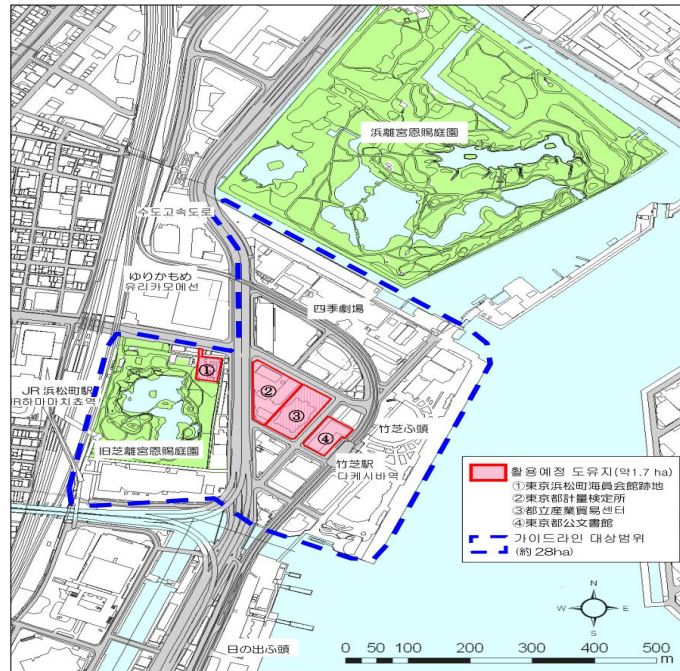
13. ‘도시재생 스텝 업(Step Up) 프로젝트’ 시행 (도쿄)

○ 도쿄都는 유지·보수 시기가 도래하는 都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관련 시설의 이전·보수와 함께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스텝 업(Step Up) 프로젝트’를 시행함. 都는 우선 다케시바 지구를 대상으로 도유지(都有地) 활용계획을 담은 ‘사업 시행방침’과 지구 전체의 마을 만들기 방향을 제시한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2010년 12월 수립함.

- 다케시바 지구는 마나토區에 위치하고 약 1만 7000m² 규모에 독립 산업무역센터, 都 공문서관 등이 있음.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대상 범위는 위 지역을 포함한 약 28만m² 규모임. 사업 목적은 민간의 노하우와 자본을 활용해 뛰어난 교통접근성을 가진 다케시바 지구 주변에 콘텐츠산업을 집적시켜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도쿄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음.

· 사업 시행자는 도유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을 설치함. 전시관 등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시설도 정비해야 함.

-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으로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고 옥상녹화를 유도해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며, 문화재 정원이나 바다 등 지구 내·외부에 위치한 우수 경관요소를 고려해 건물 높이와 색채 계획을 시행하도록 함. 해상물류 기지 기능도 강화함.



<다케시바 지구 위치도 및 사업구역>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12/20kcma00.htm)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유치원 교육비 면제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1년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유치원 교육비를 전면 무료화함. 이로써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의 연간 유치원 교육비가 자녀 1명당 평균 680유로(약 100만 원) 정도 줄어들. 베를린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6세임.
- 베를린은 독일에서 유치원 교육비 면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는 도시가 됨. 市는 당초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학비 면제를 추진했으나 2010년에 3년간 학비 면제로 계획을 변경함. 교육비 면제 폭을 원래 계획보다 늘림으로써 市는 2011년 약 19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103.1315.325076.html)